

# 마흔 번째 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여덟

그 산

Jeff Pippenger

2026-04-05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산은 파니움과 십자가 사이에 있었으며, 또 다른 선상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시의 침례와 공생애 끝 무렵의 개선 입성 직후 사이에서 있다. 침례와 산과 개선 입성의 결말이라는 이 세 이정표는 하늘 아버지께서 세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표지되어 있다. 요한복음 12장의 세 번째는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던 때이다. 침례는 9/11이며, 산은 파니움의 역사에서 16절의 일요일 법까지 이른다. 베드로에게는 파니움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산이 있었으며,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이었던 개선 입성의 결말에 이르렀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이 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던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요한복음 12:27-33.

레위기 23장과 오순절 절기로 틀이 잡힌 그 선에는, 세 단계와 그 뒤를 잇는 다섯 날로 이루어진 시작의 이정표가 있으며, 동일한 특성을 지닌 끝의 이정표가 있다. 그 이정표들 사이의 삼십 일은 제사장들의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나팔절에서 끝난다. 나팔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대면하여 사십 일 동안 가르치신 뒤의 승천, 그리고 속죄일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선의 끝을 이루는 세 단계를 나타낸다. 이 세 단계 뒤에는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섯 날이 따른다. 하늘 아버지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때는, 일요일 법 때 바벨론에서 불러냄을 받는 자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이 예수께 알현을 구하고 있던 바로 직전이였다. 일요일 법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를 들어 올리심을 밝히신다. 9/11에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여졌고, 일요일 법 때에 다시 환하여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 발해질 때, 파니움인 가이사랴 빌립보는 제삼 시요, 가이사랴 마리티마는 십자가의 제구 시이다. 십자가 이전, 곧 파니움의 예언적 역사가운데 있는 동안, 베드로는 산 위에 있으나, 아직도 승리의 입성의 끝나기 전이다. 파니움은 16절의 십자가까지 이어진다. 파니움에 있는 베드로는 레위기 23장의 나팔절, 승천, 속죄라는 세 단계의 역사 직전에 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특별한 교훈의 삼십 일 가운데 있다.

시몬은 파니움에서 베드로가 되며, 변화산에서 승리의 입성 전에 한 걸음을 내딛는다. 승리의 입성은 열 처녀의 비유를 예증한다. 오직 다섯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며, 삼중

이정표와 오순절 사이의 닳새는 승리의 입성의 시작이다. 그것은 나팔절에 시작되지만, 그 이정표는 세 이정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단일한 이정표로서 그것들은 나팔절과 더불어 내슈빌에 대한 공격을 식별한다.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은 막 확증되었을 것이며, 다섯 슬기로운 처녀의 행렬은 일요일 법인 십자가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로 이끄는 과정을 시작한다.

베드로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대한 예언을 바로잡을 때 바니움에 있으며, 그 예언의 성취에서 나팔절이 울리기 전에 그러하다. 그는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먼저 산으로 가야 한다. 이는 개선 입성에 앞서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산으로 가기 전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베드로의 이름도 그가 산으로 가기 전에 바니움에서 바뀌었다. 그 산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베드로가 받는 시험이다. 그 성취는 세 번째이자 리트머스 시험이므로, 그곳에서 성품은 기쁨이든 수치이든 드러나게 된다.

기원전 457년의 계통은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에서 끝나며,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라피아와 일치하고, 마태복음 16장의 언약은 파니움과 일치한다. 파니움에서 베드로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제사로 나아간 것과 같다. 베드로의 계통의 산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산과 일치한다.

아브라함의 이정표는 삼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승리의 입성 때에 그리스도를 태울 나귀를 데려오도록 두 제자가 보내졌는데, 아브라함의 노선에서는 그의 삼 일 여정이 이삭의 제사를 위하여 나무를 실을 두 종과 한 마리 나귀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산으로 향한 베드로의 팔 일 혹은 육 일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는 삼 일이었다. 바니움에 있는 베드로는 산 이전에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시작하게 하는 나귀를 푸는 일 이전에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삼 일이 시작되었다. 승리의 입성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 멈추어 서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으며, 이로써 하나님과 옛 문자적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종결을 표시하셨다. 베드로의 산은 승리의 입성 이전에 있고, 그리스도의 산은 승리의 입성 중에 있으며, 아브라함의 산은 그 입성의 결말에 있다.

2026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이백오십 주년을 기념하는 중간선거의 해이다. 그 기념은 예언적 중간지점으로, 기원전 457년부터의 이백오십 년의 끝을 표시하는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중간지점인 기원전 207년의 대안티오쿠스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봉인이 풀린 열한 장부터 스물두 장까지로 이루어진 네 줄을 우리가 숙고해 볼 때(아마 다른 예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그 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1장은 「침례」이고, 22장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다. 요한은 시작과 끝에 있으며, 가운데 장인 17장은 니고데모이다.

“니고데모는 주님과 토론하려는 생각으로 그분께 나아왔으나, 예수께서는 진리의 근본 원칙들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그토록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전에, 그대는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의 권위나 나의 사명에 관하여 나와 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

구원하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관하여 전파하며, 또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한 분께로 향하게 하는 설교를 들은 바 있었다. 그 자신도 유대인들 가운데 영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그들이 크게는 편협한 광신과 세속적 야망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더 나은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침례 요한의 기별은 그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자선과 성전 봉사를 유지하는 데 아낌없이 바침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태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순결한 한 나라에 대한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171.

『시대의 소망』의 중간 지점은 니고데모의 계보에서 발견되며, 그는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계보 안에서 재림운동에 대한 마지막 부르심을 대표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기별을 들었으나, 자신들의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알지 못하던 한 부류를 대표한다.

“니고데모와의 면담에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계획과 당신의 세상에 대한 사명을 펼쳐 보이셨다. 그 후의 어떤 강론에서도 그분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처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봉사 초기 바로 그 시점에 그분은 산헤드린의 한 의원에게, 가장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그리고 백성의 임명된 교사에게 진리를 열어 보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감추었고, 삼 년 동안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거의 없었다.” 『시대의 소망』, 176.

요한의 기별과 그리스도의 침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였다. 요한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라오디게아 기별이었으며, 그 기별은 그리스도의 침례 때 능력을 받았는데, 마치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이 1888년에 라오디게아에게 주어진 기별이었던 것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침례와 1888년은 9/11에 라오디게아에게 이르는 기별의 도래를 예표하였으며, 그것은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끝난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를 뜻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요한의 기별과 함께 도래하였고, 침례에서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을 통하여 규정된 인치는 기별이다. 제22장은 요한의 죽음이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들어 올려져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기호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묘사한다. 그 침례는 9/11이자 또한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니, 이는 침례가 죽음(2020), 장사됨(삼일 반), 그리고 부활(2023년 12월 31일)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한밤중의 만남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백성의 승리는 거듭남으로 예시되며, 라오디게아의 눈물음에서 필라델피아인의 이십이십 시력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 후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기호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제시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요한의 계열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삭의 희생과 일치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계열은 바닷가 가이사랴, 곧 해변 가이사랴(Caesarea

Maritima)에서 제9시에 끝나며,  $\omega\beta\upsilon\tau\eta$ 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승리로 부르는데, 이것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슬람의 셋째 화의 기별이며, 이는 9·11에 발람이 이슬람의 나귀와 처음 마주친 사건에서 도래하였고, 이어 2023년 10월 7일에 문자 그대로의 영화로운 땅을 향한 타격이 두 배로 가해졌으며, 그 다음에는 발람이 고대의 문자적인 영화로운 땅과 현대의 영적 영화로운 땅의 포도원 사이로 이슬람의 나귀를 몰아갈 때 내슈빌에서 두 번째 타격이 있었다. 셋째 타격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지진이다. 그곳에서 이삭이 드러지며, 그곳에서 순교의 흰 두루마기를 받는 큰 무리를 상징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기치의 사역을 듣고 보았다. 창세기, 마태복음,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중간 지점들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식별한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설명은 바람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역사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하였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당혹해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뜻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비유로 사용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나무 가지들 사이에서 들러와 잎사귀와 꽃들을 흔들며 소리를 내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으며, 아무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도 그러하다. 그것은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이 회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정황을 다 추적해 낼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 조금씩, 어쩌면 받는 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고자 하는 감동이 새겨진다. 이러한 감동은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혹은 살아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침내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로 임하실 때, 그 영혼은 기꺼이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오랜 권면의 결과요, 인내하며 오래 계속되는 과정이다.”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보이고 느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이 영께서 영혼에 역사하시는 일은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모든 행위에서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께서 마음을 차지하실 때, 그분은 생애를 변화시키신다. 죄된 생각들은 버려지고, 악한 행위들은 포기된다. 사랑과 겸손과 평화가 분노와 시기과 다툼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빛은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짐을 들어 올리는 손을 보는 사람은 없고, 위의 궁정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도 없다. 그 축복은 영혼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른다. 그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시대의 소망, 172, 173.

9·11에 늦은 비가 흠뻑리기 시작하였다. 9·11에 성경 예언에서 “동풍”으로 표상된 이슬람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은 일이 시작됨에 따라 도래하였다. 스가랴의 두 금관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금 기름”으로 표상되는 기별인 늦은 비는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회개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바람은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일을 시작하였고, 예레미야의 옛 길의 기별을 사용하여 눈먼 라오디게아인들의 마음에 말씀하였다. 니고데모에게 제시된 성령의 역사, 곧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한 걸음씩의" "필요한 일"이 더욱 온전히 설명되었다. 그 과정은 그리스도에 의해 바람의 역사에 비유되었으며, 그 과정은 9-11에 도래한 "동풍"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 이사야는 같은 기간을 거센 바람이라는 표현으로 다루고 있다.

주께서 그것이 돌아날 때에 적당한 분량으로 그것과 다투시며, 동풍이 부는 날에 그의 거센 바람을 멎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의 죄를 없이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백약석 같게 만들 때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27:8, 9.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들에 서로 일치하며, 이사야의 "광풍"은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억제되어 있는 요한의 싸움의 바람들이다. 이사야의 광풍은 이사야의 증언에서는 "멎게 된" 동풍이며, 요한의 증언에서는 불들려 있는 바람이다. 요한의 싸움의 바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는 동안 불들려 있으며, 이사야의 동풍은 "야곱의 불의"가 "제하여지는" 시기로 밝혀진다. 히브리어로 "제하여지다"는 속죄되었다는 뜻이다. 요한의 인치는 일은 에스겔 9장과 동일하며, 또한 야곱의 불의가 제하여지는 것과 동일하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가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천사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아무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그 천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오순절 절기에 제자들을 마주 대하여 사십 일 동안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신 끝에 승천하셨고, 또한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에, 수 삼십으로 표상되는 제사장들을 마주 대하여 삼십 일 동안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신 끝에 승천하신다.

2026년은 중간선거의 해이며, 그 선거는 이미 예언적 이정표로 입증되었다. 민주당이 2020년 선거를 훔치지 않았더라면, 트럼프는 로마의 수수께끼를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의 수수께끼란 곧 그것이 여덟째이면서도 일곱 중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 수수께끼는 트럼프를 짐승의 우상의 대표자로 식별하는데, 그는 언제나 여덟째로 올라오면서도 일곱 중에 속한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교 로마의 열 뿔 가운데 셋이 제거되어야 했다. सथान् 교황 로마는 다른 일곱 뿔 가운데서 여덟째로 올라왔으나, 그것은 이교 로마에서 나왔으니, 곧 일곱 중에 속하는 것이어야 했다. 다니엘 8장에서 메대-바사 제국은 두 뿔로 표상되었고, 그 다음 헬라는 하나의 뿔이었는데, 그것이 꺾였을 때 네 뿔을 내었으므로, 로마가 이르기 전에 이미 일곱 뿔이 있었고, 로마의 작은 뿔은 여덟째이다. 로마가 언제나 여덟째로 올라오면서도 일곱 중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증인들도 있으나, 그 수수께끼의 주된 기준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이다.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짐승은 곧 여덟째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7:9-11.

2020년에 도둑질당한 선거는 선거가 예언적 이정표임을 드러내었다. 이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은 카터 대통령에게서 발견된다. 레이건은 로마의 형상을 이루면서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인 트럼프로 이르게 하는 대통령들의 첫째였다. 레이건은 끝의 때인 1989년 이후의 여덟 대통령 계열의 첫 번째였다. 1989년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4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가장 부유한 왕에 대한 증언을 제시한다. 레이건에 앞서서는 그 시점까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있었다. 카터는 해결되지 않은 이슬람의 위기와 함께 퇴임하였다. 그로부터 47년 후, 트럼프는 현재 민주당원 카터가 레이건에게 남겨 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처음이자 알파인 레이건이 공화당원이었고, 끝이자 오메가에서의 공화당원을 예표하였으므로, 트럼프 또한 그에 앞선 민주당 대통령이 만들어 낸 이슬람의 위기를 물려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그는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그 시점까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어야 했다. 물론 오바마는 그러한 모든 예언적 특징을 성취하였고, 바이든도 그러하였다. 레이건이 마지막 자를 예표하기 위하여는, 그는 여덟째뿐 아니라 여섯째도 예표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 경우 모두에서 트럼프에 앞선 실패한 대통령직들의 연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들을 통제하셔야 했다. 선거들은 예언적 이정표이며, 2026년은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인 그 대통령의 중간선거이다.

미합중국의 이백오십 년의 선은 1776년에 시작하여 2026년에 절정에 이른다. 기원전 457년의 이백오십 년의 선은 기원전 207년에 절정에 이르는데, 이는 11절과 15절 사이, 곧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이다. 라피아는 예언적으로 창세기 17장의 할례의 언약과 일치하며, 파니움은 예언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의 십사만 사천의 언약과 일치한다. 2026년은 기원전 207년과 일치하며, 11절과 15절 사이—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에 있는데,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실 마지막 언약 사이이기도 하다.

기원전 207년의 중간점과 2026년에 끝나는 이백오십 년의 두 선은, 서기 64년에 로마 시가 불탔을 때 시작된 박해의 이백오십 년 선과 일치한다. 그 지점에서부터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칠 년의 경고가 한 이상한 사람에 의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되었다. 70년이 이르러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졌고,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에베소 교회가 부활의 오순절 기별을 선포하고 있던 바로 그때, 서머나 교회로 상징되는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이는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그 두 교회가 한동안 병행하여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언적 에베소 교회의 한 지도자였으나, 그는 그 두 역사 모두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박해와 고난, 곧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뎌 냈는지 네가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1, 12.

A.T. 존스는 64년에 시작하여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이르러 끝나는 이백오십 년의 기간을 지적한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는 이교 로마에 의해 자행되었으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열흘을 지목하는데, 이는 그 기간 중 가장 극심한 박해를 상징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로 상징되는 그 박해의 기간은 10년 동안이었으며, 303년에 시작되어 313년에 끝났는데, 그때는 대(大)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는 321년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에도 통치하고 있었으며, 330년에는 로마를 동서로 분할하였다. 313년은 서방의 통치자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이복누이 플라비아 율리아 콘스탄티아를 로마 제국의 동방(혹은 장차 동방이 될) 지역을 지배하던 황제 리키니우스와 혼인시키는 밀라노에서의 외교적 결혼으로 예언적으로 표지되었다. 그 결혼은 콘스탄티누스가 330년에 왕국을 동서로 분할하였을 때 상징적으로 종결되었다.

네로의 250년 기간은 세상의 끝을 예표하는 포위로 시작하여 포위로 끝나는 7년의 기간으로 시작된다. 그 기간의 끝에는 분명한 10년간의 박해가 있었다. 그 기간은 에베소의 시대에 시작되었고, 이어서 서머나의 역사를 포괄하였으며, 마침내 타협한 콘스탄티누스의 교회, 곧 버가모 교회가 313년에 이르렀다.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그 17년은 라피아와 파니움의 역사 속에서 그 대응점을 찾는데, 곧 기원전 217년의 전투와 기원전 200년의 전투가 17년의 간격으로 나뉘어 있다. 라피아 전투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승리하였으나, 파니움 전투가 있기 전에 그는 이미 죽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17년 동안 통치하였다. 세 번의 17년에 의해 서로 묶인 세 개의 250년의 선은 313년이 2026년과 정렬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313년은 박해로부터 타협으로의 뚜렷한 전환이었으므로, 스미르나에서 버가모로의 변화로 예표된 어떤 예언적 성격의 변화의 상징으로서 313년을 표지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7년 후 이혼으로 끝난 외교적 결혼으로 나타내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최초의 일요일 법이었다. 영감은 일요일 법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선행으로 둔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는데, 그 과정에는 당신에게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그 일요일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일요일 법들이 포함된다.

독자가 곧 닥쳐올 투쟁에서 사용될 세력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과거 여러 시대에 로마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들의 기록을 더듬어 보기만 하면 된다.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로마가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을 대하여 나타낸 정신을 보게 하라.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는 왕의 칙령들과 총회들과 교회 규례들은, 이교의 축제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명예로운 지위에 이르게 된 단계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한 최초의 공적 조치는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법률이었다. (서기 321년.) 이 칙령은 도시 주민들에게 '존귀한 태양의 날'에 쉬도록 요구하였으나, 시골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농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적 법령이었으나,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후에 황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73, 574.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왕의 칙령”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세속 권력에 의해 지지된 총회들과 교회 규례들이 그 단계들이었다.” 이것들은 321년에 이른 최초의 일요일 법으로 인도한 점진적인 단계들이었다. 그 단계들 가운데 하나는 일요일 준수와 같은 “교회 규례들”이었으며, 그것들은 “세속 권력에 의해 지지된” 것이었다. 1888년의 시기는 블레어 상원의원에 의해 상원에 제출되었으나 끝내 진전되지 못한 일련의 일요일 법안들을 보여 주지만, 같은 역사의 기간 동안 여러 주에서는 주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일요일 법들이 통과되고 있었다. 이 두 증인은 313년을, 행정명령과 같은 “왕의 칙령들”이 용이 땅의 짐승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을 표시하는 이정표로 제시하는데, 그 짐승은 마침내 용처럼 말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미합중국이 용처럼 말할 때, 그것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끝을 맺게 되며, 그 끝맺음은 그 나라가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하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798년에 미합중국은 외국인법과 선동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일요일 법을 예표하였다. 1798년의 외국인법과 선동죄법은 1776년 독립선언으로 시작되고 이어 1789년 헌법으로 뒤따른 세 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였다. 이 세 단계는 313년, 321년, 그리고 330년과 일치한다.

1776년, 1789년, 그리고 1798년은 모두 말하는 행위로 규정되는 행동들이었는데, 이는 영감이 우리에게 “그 나라의 말함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동이다”라고 알려 주기 때문이다. 313년, 321년, 그리고 330년은 모두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관련된 이정표들이다.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 곧 북왕국과 남왕국의 종말은 모두 이혼으로 상징되며, 이것이 330년이 나타내는 바이다. 그것은 17년 전에 시작된 결혼, 곧 밀라노 칙령의 결혼에서 동방과 서방 사이에 일어난 이혼이다. 일요일 법 때에 미국은 은혜의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그 예언적 목적의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하게 될 것이다. 영감은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330년으로 표상된 영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이혼시키실 때 일어난다. 313년의 결혼으로부터, 321년의 점증하는 일련의 일요일 법들 가운데 첫 번째 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330년의 이혼에 이르기까지이다. 1776년은 313년과 정렬되며, 1789년은 321년과 정렬되고, 1798년은 330년과 정렬된다.

330은 또한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로부터 360년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다. 악티움은 로마의 세 번째 장애물이었으며, 따라서 현대 로마가 그 둘째와 셋째 장애물을 정복하는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330의 이정표에서 파니움 전투는 악티움 전투와 결합한다.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는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치하며, 이어 2015년에 트럼프는 그의 첫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땅의 짐승의 두 뿔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며, 2023년에는 그것들이 둘 다 부활하였다. 2024년에는 기초들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었고, 2025년에는 여덟째 대통령과 그의 교황 측 대응 인물의 예언적 동맹이

그들의 상호 취임으로 표지되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일들을 계속 다루겠다.